

중국 하얼빈 가극원 민악단 공연 전국 300팀 참여 스트리트댄스 배틀

주말 광주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

5·18광장 한중전통문화 한마당
인문학 축제 '메모리&양림' 열려
월봉서원서 국악방송 공개방송

세계 거리축제 전문가들 참석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미래 워크숍



하얼빈가극원민악단 공연 모습.

소리 없이 깊어가는 가을,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져 흥겨움과 정취를 더해 준다.

이번 주말에는 곳곳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행사 현장을 찾아 가을을 만끽해도 좋을 것 같다.

16일(오후 5시30분) 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와 하얼빈, 두 도시의 전통문화예술이 한 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이 중국 하얼빈가극원 민악단(원장 왕덕봉)을 초청해 개최하는 '2017 한중전통문화교류 공연'은 문화교류를 통해 한중 양국 간 이해를 넓히고, 중국 내에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7년째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 초청공연은 광주시가 주최하는 '한중교류 25주년 기념' 중국문화주간 개막식 공연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하얼빈가극원 민악단은 중국 전통 민악 합주곡 '희양양', '월야오경', '나리꽃'과 첼로를 가미한 '나비와 파랑'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작품들을 연주한다.

풍물연희예술단 '광대'의 풍물판국과 내드름예술단의 진도북춤이 전통적인 장단과 신명의 몸짓을 선보이고, 라틴 댄스 전문단체인 준댄스아카데미도 흥을 돋울 예정이다. 문의 062-670-7462.

다양한 춤꾼들의 현란한 몸짓을 볼 수 있는 스트리트댄스 배틀 공연 모습.



스트리트댄스 배틀 공연 모습.

리트댄스 배틀 공연도 눈길을 끈다.

댄스그룹 '빛고을댄서스(대표 조숙영)'는 16일(오후 2시) 광주아르코콘서트홀에서 '제6회 스트리트댄스 배틀 공연 라인업'을 개최한다.

스트리트댄스 배틀 공연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댄서들을 초청해 힙합, 워킹 등 모든 스트리트댄스 장르를 선보이는 공연으로 지난 2014년부터 4년째 운영중이다.

이번 '제6회 스트리트댄스 배틀 공연 라인업'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함께하는 '2017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滿)계' 모금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개최한다는 점이 특징. 이날 공연은 스트리트댄스를 주제로 전국 스트리트댄서 300팀(명)의 예선전이 진행되며 이후 16일부터 토너먼트 배틀을 통해 본선 및 결승전이 이어진다. 쇼케이스 게스트로는 코스믹 디-플로우(COSMIC D-FLO), 소울 케이(SOUL K) 등이 참여해 화려한 퍼포먼스와 볼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입장권(2만5000원)은 광주아르코콘서트홀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며 모든 좌석은 스탠딩이다. 문의 062-670-7957.

주인 아이디어를 매개로 3개월 동안 양림동에서 근대를 매개로 진행돼 온 인문학 축제 '메모리 &

양림'도 볼거리다.

2017마을문헌츠 개발 공모사업 일환으로 남구 관창이 주관하고 양림문화사랑회가 수행한다. 16일(오후 5시) 오웬기념관에서 펼쳐지는 모노드라마 "후랏빠"로 오해받은 한 모던 걸'은 조선의 모던 걸을 주제로 삼은 '나, 김연실'이다. 김동인의 소설 '김연실 전'과 이를 패러디한 정이현의 '이심세기 모던 걸-신김연실전'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재즈 음악공연, 조선모던댄스, 각테일도 함께 진행된다.

또 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참가자들은 양림동의 근대상 테마가게 '미광 의상실'에서 제공하는 플래퍼룩, 깃털 헤어밴드, 소두아르 목걸이 등을 착용하고 1920년대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또 미광의상실엔 1900년부터 1940, 50년대까지 다양한 근대상들이 갖춰져 있어 색다른 체험이 가능하다.

광주국악방송 '무릎길산책'은 월봉서원과 함께 서원음악회 '고봉다움 고봉다움'을 16일(오후 2시) 월봉서원 병월당에서 개최한다.

'고봉다움 고봉다움'은 고봉 기대승 선생의 뜻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호남의 선비를 연구하고 있는 이향준 박사가 대담자로 출연한다. 대담 사이에는 생활연주자 김효영, 가객 김나리, 소리꾼 박무성 등의 음악인들이 출연해 전통가곡, 장작곡, 판소리 등 다양한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62-602-9310.

이밖에 세계적 거리축제 전문가들이 광주를 찾아 광주프린지 미래를 모색하는 워크숍도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15일부터 17일까지 빛고를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다이오게이 월드컵 in 시즈오카' 예술감독 마시키 고가 씨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한다. 아시아 최대 거리공연축제 중 하나인 '다이오게이 월드컵 in 시즈오카' 예술감독과 함께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이다. 광주지역 거리예술가 및 문화예술기획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062-601-491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김광례 설치작품전

24일까지
갤러리 북



▶'Lost&Found'

갤러리에 들어서면 먼저 마주치는 건 길게 드리워진 하얀 광복전이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공중에 떠 있는 네 개의 커다란 조형물이 보인다. 한지의 구김을 그대로 살린 작품 안에는 각기 다른 조도(照度)의 조명을 설치해 다양한 빛을 투영시킨다.

조형물이 둘러싼 정중앙 천정에 매달려 있는 건 청동으로 만든 5개의 '종'. 길게 매달린 종을 잡아 당기면 '땀땀'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조각가 김광례 설치작품전이 오는 24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갤러리 북에서 열린다. 전시작은 단 한 작품이다. 전시회 제목이기도 한 'Lost&Found'다. 작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 무언가를 놓아 버리고, 찾는 과정을 반복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담아 작품을 제작했다.

한지를 세겹씩 발라 설치한 조형물은 엄마의 뱃속에 담긴 양수를 상징한다. 안에서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빛은 엄마의 포근한 뱃속이다. 사방에 둘러쳐진 광복전은 양수를 보호하는 장치며

종을 치는 행위는 무언가를 '끊어내는' 의식같은 것이다.

이번 작품은 음악과 함께 감상해야 '완성'된다. 은은한 종소리가 인상적인 티벳의 명상음악과 빌터글라스의 뉴에이지 음악, 물소리와 바람 소리가 어우러진 공간에 앉아있으면 정화되는 기분이 든다. 전시장에서 느긋하게 음악에 귀 기울이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당초 회화를 전공했던 그녀는 좀더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어 호남대 조소과에서 정식으로 조각을 전공했다. 광주시미술대전·전남도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했으며 호남조각회, 청동회, 한국조각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타인을 치유하고 토닥이는 작품을 만들어온 그녀는 지난 2013년 첫번째 개인전에서 FRP로 만든 해골과 정강이 뼈 등을 낚은 목선에 실은 '그대 이제 잘가라'라는 강력한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문의 010-9078-18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엄음악제

17일까지 3일간
세계 아티스트들
전시·교류·체험



▶지난해 화엄음악제 모습

깊어가는 가을 밤 천년고찰에서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음악제가 열린다.

화엄사가 주최하고 문화부, 문화예술위원회, 구례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후원하는 화엄음악제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화엄사에서 펼쳐진다.

장르와 세대,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는 축제로 자리잡은 화엄음악제는 이번 행사에서 전야제, 화엄콘서트, 아담법석 콘서트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음악제에서는 송창제 작가의 전시특강, 화엄사 다도체험, 건축투어 '천년고찰-문화재보수, 복원을 고찰하다'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준비돼 있다.

특히 국보 301호이자 높이 12m의 위용을 자랑하는 그림 '괘불'(화엄사영산회괘불탱)이 전시돼

음악제의 신비로움을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신설된 '화엄 레지던시'에는 미국, 영국, 카보베르데, 불가리아, 레바논, 모로코, 일본에서 초청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화엄사에서 머물면서 자유로운 교류와 토론을 전개한다.

15일 전야제에는 한국인 '잇다'와 일본인 '마르카도'로 구성된 혼성 듀오 '텐가' 등이 출연한다. 또한 한국무용을 전공한 안무가로 현대 공연예술계의 거장 로버트 윌슨 등과의 작업해온 이양희의 무대가 펼쳐진다.

16일 화엄콘서트에는 색소폰 연주자 신현필, 거문고 산조 인간문화재 이재화 등이 출연하며 마지막 17일에는 싱어송 라이터 장필순과 크로스오버 밴드 주스 프로젝트가 공연한다. 선착순 무료 입장. 문의 02-3455-5352. /박성천기자 skypark@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여기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

한가위 패키지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스탠다드룸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